



서양과 일본의 근대화 비교 및 해석

「서양지성사와 철학」과 「일본입문」강의페어링

경제학과, 김민정, 201321872, 송하석교수님 지도

서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대화의 모습은 바로 서양의 근대화이다. 유럽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정치권력이 왕으로부터 국민에게로 왔다. 서양이 근대화 되던 시기에 일본 또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나아가던 시기였지만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졌다. 정치권력이 국민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황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일본의 근대화와 서양의 근대화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단순한 비교에서 더 나아가 당시 근대화를 이루던 서양인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것이다.

서양의 근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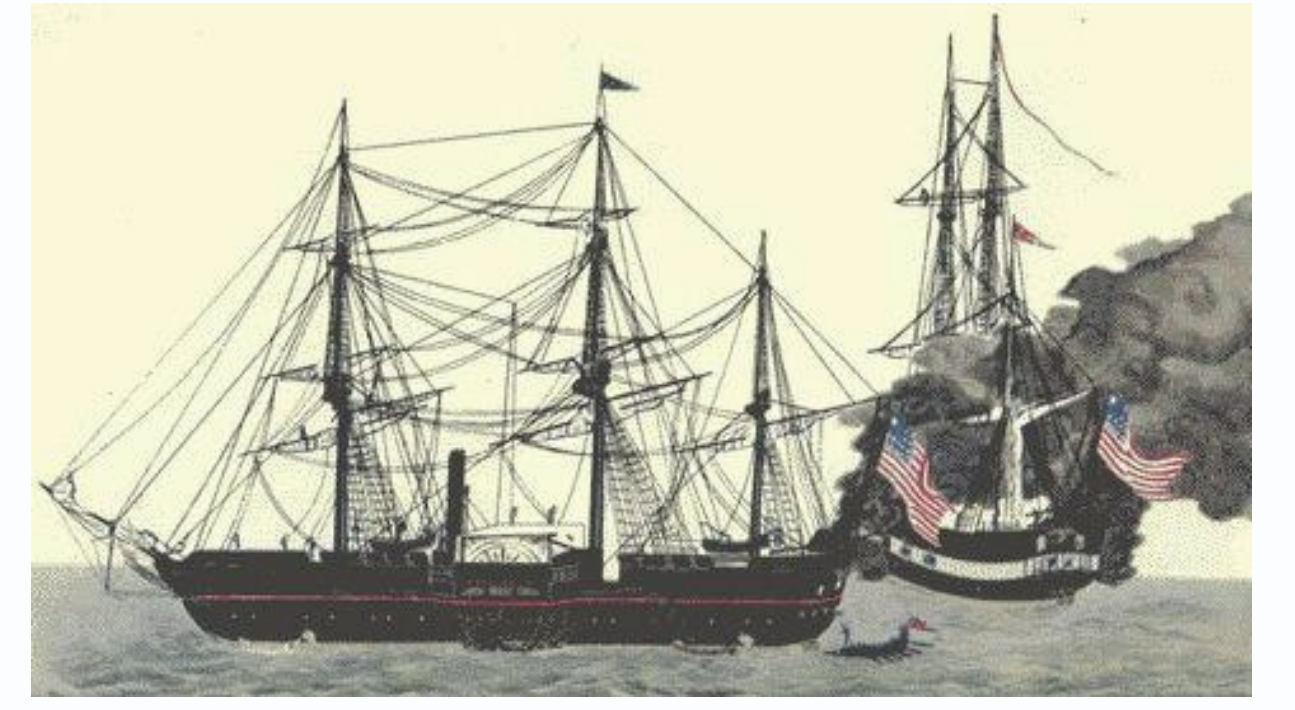
서양 중세시대 말기에 교회는 타락했고, 상인 계급의 성장으로 봉건제와 계급사회는 흔들렸다. 이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신항로의 발견, 시민혁명, 시민혁명과 같은 근대화 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유럽은 근대화를 맞이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차지했던 엄청난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짐이 곧 국가”였던 절대 군주제도는 무너졌다. 그리고 식민지 개척과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의 경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했고,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왕이 아닌 인민이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일본의 근대화

막부 말기인 1853년에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에도만에 출현해 개항을 요구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의 근대화는 시작된다.



메이지 천황은 1868년 메이지 개혁으로서 신정부의 방침을 제시했다. 메이지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고대로의 회귀’이다. 존왕론을 토대로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황에게 돌려줬다. 이러한 정치권력에 의해 근대국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위에서부터의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서양과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어냈다. 일본의 근대화는 외부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부작용이 따라왔다. 특히 정치·문화·사회·경제 중에서 정치에서의 변화는 더 컸다.

서양과 일본의 근대화 비교 및 해석

<표1> 서양과 일본의 근대화 비교

	서양	일본
동기	내부적 경험	외부적 압력
정치권력	인민, 아래서부터의 근대화	천황, 위에서부터의 근대화
속도	3세기	30년
부작용	비교적 적은 갈등	내부적 갈등

서양과 일본의 근대화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근대화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양은 스스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뤄냈지만, 일본은 외부의 세력에 의한 근대화를 이뤘다.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정치영역에서의 근대화이다. 유럽의 인민들은 절대왕정 제도에 반발했고, 정치권력을 소수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발상을 해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정치영역의 근대화는 서양과 같이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명의 천황에게로 돌아갔다. 천황을 내세워 중앙집권화를 달성하고, 일본은 효율적으로 근대화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작용이 따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바로 근대화의 기간이다. 서양은 선례 없이 자신들이 근대화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냈다. 하지만 일본은 따라 할 선례가 존재했고, 그들을 배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다. 일본은 서양을 따라 30년 만에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

결론

서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의 근대화를 이뤘다.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신항로의 발견,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쳐 오랜 기간을 통해 근대화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강력한 정부가 등장하고 정부 주도하에 서양의 근대화를 모방하여 근대화를 이뤄낸다. 이로부터 서양의 근대화와 일본의 근대화 사이의 차이가 생겼다. 아래에서부터의 근대화와는 달리 위에서부터의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서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반면 그에 따르는 내부적인 부작용 또한 존재했다. 이는 오랜 기간 근대화를 이룬 서양과 구별되는 일본 근대화의 특징이다. 서양인들의 눈에 빠른 시간 동안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놀라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국민들에 의한 근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한 근대화를 이룬 대상이었다.

참고자료

찰스 밴 도렌. 1991. 『지식의 역사』. 갈라파고스 / 일본사학회. 2011.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 루스 베네딕트. 2008.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